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사무실 063-288-2400 ~ 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음 5월 14일) 제207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프로축구 · 문화 · 관광을 하나로

전주시, 관광패키지 육성
지원 전문가 포럼 진행
“문화 · 지리적 자원 연계
지속가능 콘텐츠로 키워야”



전주에 장맛비... 달려라! 달려!

관광도시 전주시가 프로축구 아시아 최강팀인 전북현대모터스FC의 연고도시인 장점을 살려 프로축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보에 나섰다. 시는 2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스포츠산업 전문가와 전북현대모터스FC 관계자, 관광업계 종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축구를 통한 관광패키지 육성지원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홍성택 전주대 생활체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시가 지난 달 납품받은 ‘전주스포츠산업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본격적인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신창훈 우석대 스포츠학과 교수의 ‘프로축구를 통한 관광패키지 육성지원 방향 제시’ 주제발표와 스포츠 · 관광 · 구단 · 언론 등 각계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창훈 우석대교수 교수는 스포츠관광 관련 현황과 국내 사례 등을 소개한 뒤 프로축구를 전주의 문화 · 지리적 자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스포츠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또 공항 · 항만 · 도로 · 숙

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 SOC와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과 전주시 · 전북현대모터스FC · 전북관광협회 · 언론 등 관련단체간 역할 및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홍성택 전주대 교수, 정경구 전주대 경기지도학과 교수(축구전공), 신태균 하나투어 호남본부 전북지점장, 양준식 전북현대모터스FC 대외협력팀장, 최명국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26일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유산을 준비하지 못해 가방으로 비를 막으며 교정을 지나고 있다.

전북일보 기자, 김진규 다공매거진 편집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가졌다. 이날 패널들은 전주시를 연고지로 둔 전북현대모터스FC와 전주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분야별 방안들을 제시했으며 각 분야별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스포츠와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포츠콘텐츠 발굴 · 육성을

통해 전주시 스포츠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오재수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전주시 실정에 맞는 실질적이고 특화된 스포츠산업을 발굴 ·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방운혁 신임 탄소융합기술원장 임명

“탄소산업 성장 바탕 국가발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할 것”



전주시는 탄소 등 섬유고분자 분야의 권위자인 방운혁 前 효성 탄소재료 사업본부장을 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차기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방 신임원장은 탄소섬유를 전공한 박사 출신으로 탄소산업과 관련한 논문 21편 관련특허 43건을 보유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방 원장은 (주)한일합섬에서 섬유연구개발 연구원으로 시작, 부산대 교수, (주)한화케미칼 연구원을 거쳐 (주)효성에서 탄소특화산업보육센터장-탄소섬유 전주공장장-탄소재료 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탄소연구조합 이사과 한국복합재료학회 부회장, 한국철강소재학회 기술이사 등을 맡아 활동하며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2004년) 산자부장관 표창(2007년) 한국탄소학회 기술상(2012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국무총리상(2014년)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산업 발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2013년)과 전라북도지사상(2015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방 원장은 “탄소산업은 이제 전북

전주의 지역특화사업에서 국가전략 산업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려는 중차대한 시기”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원천기술 확보-기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시와 기술원은 지난 5월 초 임원추천위원회(지방의회 추천 9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천 2인, 이사회 추천 2인 등 총 7인)를 구성, 신임원장 공개모집을 진행, 총 6명이 지원한 가운데 엄정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출한 뒤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후, 기술원 이사회는 지난 8일, 2배수 압축 후보자들의 정경 발표 후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뒤 방운혁 씨를 신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으며, 신원조 회 등 채용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임명했다.

기술원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는 “탄소산업 전반에 걸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조직의 리더로서 경영능력과 친화력 등을 갖춘 최적의 후보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방 신임원장의 임기는 전임원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2019년 11월 24일까지다. /송효철 기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신규 착수 484억 확보

전북도, 가뭄 발생 농경지 피해 예방 도움 기대

전북도는 최근 안정적인 용수 공급으로 상습 가뭄 피해 해소를 위하여 농식품부로부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신규착수 및 기본조사 각 1지구씩 총 2지구를 선정받아 484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 및 설득의 결과로

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의 시행을 통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설치를 통해 가뭄 상습 발생 농경지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선정된 2018년 신규 설계 착수는 부안 보안지구로 올해부터 향후5~6년간 국비 284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연내 면밀한 현지 조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설계를 완료 후 내년 초 용지 보상 및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확정된 익산 낭산지구는 농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1~2년 소요)으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 우선 순위 검토 등을 거쳐 신규 착수 지

구로 선정하게 된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 국장은 “지난 6월초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 11개지구/1,381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금회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지구/48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 지역 농경지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메일 INDEX
12면 -내일 익산서 백제문화유산주간

전주시, 감염병 예방 · 관리 대책 모색

전주시보건소는 감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과 발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관계자들과 감시 및 대응체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플루엔자 813건 △제5군감염병 12건 △성매개감염병 553건 △의료관련감염병 7,893건 △장관감염증 427건 △급성호흡기감염증 2,300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8건 △안과 감염병 9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장병호 보건소장은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해 신고체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또,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체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주시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에 주 1회 감염병 신고를 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인플루엔자 813건 △제5군감염병 12건 △성매개감염병 553건 △의료관련감염병 7,893건 △장관감염증 427건 △급성호흡기감염증 2,300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8건 △안과 감염병 9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장병호 보건소장은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해 신고체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IMSIL-GUN 임실군

치즈와 열매의 고장, 임실

청정 자연이 준 선물, 임실에 농특산물!

우리 지역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들인 농특산물을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실의 이름으로 맛과 품질을 자신합니다.

2018 임실N치즈축제 10.6.(토)~9(화)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

치즈 ♥ 반하다! 임실 ♥ 골라다!

치즈, 고추, 한우, 복숭아, 배, 오이, 딸기, 토마토, 양파, 감자

임실군 쇼핑몰 063-640-2437 홈페이지 www.imsil.kr